

‘부끄러운 호남의 관문’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본격화

광주 광산구가 ‘호남의 관문’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된 광주송정역 일대 여인숙 거리를 정비하고 역 광장을 대폭 확장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속열차(KTX) 등을 이용해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후 여인숙 등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산구는 역사에서 광주공항 방면에 위치한 여인숙 등 노후 건물을 철거해 확보한 9520㎡(약 2880평) 부지를 광장으로 확장하고, 보행·녹지·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송정역 광장 면적은 약 1만3120㎡로 늘어난다.

아울러 버스 및 택시, 승용차 등의 승·하차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상습적인 교통 혼잡 문제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토지 및 영업 보상비와 철거·조성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55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산구는 역 광장이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은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교통 관문으로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광장과 외부 공간이 협소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루 이용객은 KTX 개통 전인 2015년 3327명에서 최근 2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 2030년이면 3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는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조감도

사진=광주광산구제공

광산구, 여인숙 거리 철거 1만3120㎡ 광장 조성 이용객 급증에도 광장 협소... 국가사업 추진 건의 환승·교통혼잡 해소 기대... 총 사업비 1055억원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면적을 5755㎡에서 1만799㎡로 늘리고 낡은 대합실·승강장·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송정역 확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광장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송정역 광장 면적은 동대구역(2만

5638㎡)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타 광역권 거점역에 비해 초라할 뿐더러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송정역 택시승강장은 16면, 버스승강장은 2면에 그쳐 대중교통 간 연계성

이 떨어지고 대로변 승하차로 인한 교통 혼잡도 심각하다. 동대구역의 경우 택시승강장 130면, 버스승강장 8면을 갖춰 각각 8배, 4배 규모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 역사 증축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광장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쳐가는 공간에 머물 것”이라며 “호남 대표 관문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광주교육감 예비후보들 ‘교육통합 별도 공론화’ 촉구

“교육 주체 배제된 채 행정통합에 종속... 당사자 참여 합의기구 필요”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후보 3명이 광주·전남 교육통합은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행정의 속도전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며 “교육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인사, 교육 재정 배분, 학교 통폐합, 학생 학습권 보장 등 통합 이후 발생할 문제를 양·도·교육청과 교원, 학부모, 시민이 함께 충분히 논의한 뒤 교육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은 실현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속의 깊이”라고 강조했다.

세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거대한 흐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교육 주체들이 배제된 채 특별법과 특례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타협은 공공교육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세 예비후보는 “광주는 과밀학급 해소와 과도한 진학 경쟁 완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전남은 작은 학교 유지와 농어촌 교육 인프라 보호가 생존의 문제”라며 “교육 여건과 과제가 현격히 다른 두 지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삶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통합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3명(왼쪽 두번째부터 정성홍, 오경미, 김용태)이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교육통합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며 “교원 인사 체계 혼선, 생활권 붕괴,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 없이

교육계를 배제한 채 추진하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1곳만 87%?”... 나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초라’ 감사원, 한전·aT·한전KPS 등 6곳 감사 농어촌공사 80%대... 나머지 30%대 “농어촌공사 예외 규정 남용 가능성 제기”

감사원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의 ‘고(高)채용률’ 수치가 과도한 예외 규정에 따른 착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이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대규모 기관들의 채용률은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

한국전력공사는 배정 인원 594명 가운데 185명만 지역인재로 채용해 채용률이 31.14%에 그쳤고, 한전KPS(39.21%), 한전KDN(39.21%)도 40%를 넘지 못했다. 중견 기관인 aT(36.51%)와 전력거래소(35.71%)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의무 배정 인원 40명 중 35명을 채용해 87.5%라는 압도적인 채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두고 “실질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높은 채용률이 실제 채용 규모 확대보다는 예외 규정 적용으로 ‘대상 모수(母數)’가 과도하게 축소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관 규모를 감안하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40명에 불과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예외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대

상 인원을 줄인 뒤, 그중 상당수를 채용하면서 겉으로는 80%대 성과가 나온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와 현장 실태 간 괴리에서 드러난다.

국토부 통계 기준(2018~2024년)에 따르면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운영하는 127개 공공기관의 평균 채용 실적은 매년 의무채용비율을 4.95~11.47%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6개 이전기관 중 일부는 2024년 기준 의무비율을 최대 55.71%포인트(한국농어촌공사 85.71%)까지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수치가 “과다한 예외 규정 적용으로 실제 채용률을 과대 포장한 결과”라고 짚었다.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채용 대상 인원은 줄고 결과적으로 법정 의무 비율을 쉽게 초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발표하는 채용률과 실제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채용 성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감사 결과에서는 지역 대학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편중 현상도 확인됐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 전체의 인재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향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의 합리적 정비와 함께, 채용 실적 산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만취해 기사 폭행·택시 탈취... 순천시 간부공무원 체포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간부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전남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A씨는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를 빼앗은 A씨는 홀로 3km를 운전하다 길거리에 멈춰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